

내부회계 고도화 이후를 위한 상시 모니터링

Risk Sensing & Detection for Fraud, Waste, Abuse

채수완 이사 Risk Advisory

카스텔라 나누기와 직무분리

한창 먹을 나이인 어린이 2명에게 직사각형의 카스텔라를 하나 주고 사이 좋게 나눠 먹으라고 했다고 가정해 보자. 다툼 없이 사이 좋게 나눠 먹게 하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 어른의 개입 없이도 사이 좋게 나눠 먹을 수 있을까? 만일 카스텔라를 나누는 권한을 한 아이에게 주고 고르는 선택권도 그 아이에게 준다면 어떻게 될까? 인간은 기본적으로 욕심이 있기 때문에 나누는 권한과 선택권을 모두 가진 아이가 더 큰 카스텔라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부작용을 줄이고 두 어린이가 공평하게 나눠 먹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 한 아이에게는 자르는 권한을 주고 다른 한 아이에게 선택권을 준다면 자르는 아이는 최대한 균등하게 자를 것이다. 자기에게

선택권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최대한 많이 먹기 위해서는 균등하게 자르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카스텔라 나누기 사례에서 보듯이 권한을 어떻게 부여하고 사용하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이를 흔히 직무분리(Segregation of Duties, SOD)라 부른다.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욕망을 현실화할 상황이 주어지면 인간은 누구나 부정의 유혹에 빠질 수 있다. 흔히 기회(Opportunity), 이득(Incentive), 합리화(Rationalization)를 일명 '부정의 트라이앵글(Fraud Triangle)'이라 부른다. 부정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거나, 개인적인 이득이 주어지는 경우를 없애거나, 부정행위를 합리화할 상황이 없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직무분리는 부정을 차단하는 조직 내 시스템이라 볼 수 있다.

직무분리를 제대로 운영하려면 이해상충이 존재하는 직무의 식별과 각 직무에 맞는 책임과 권한의 정의가 필요하다. 직무에 따른 책임과 권한은 곧 정보기술(IT) 시스템의 권한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직무분리 설계를 IT 시스템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예를 들어, 회계전표 입력 권한과 승인 권한을 동시에 가지면 안 된다고 정의되어 있지만 만약 이를 IT 시스템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동일인이 입력과 승인을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직무분리는 반드시 시스템과 연계되어야 한다. 직무분리에 대한 내부통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사후 모니터링이 되어야 하며, 직무분리 설계와 배치되는 권한 부여가 시도될 경우 자동으로 통제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

상수도 누수와 근본 원인 해결의 중요성

최근 인천과 서울에서 붉은 수돗물이 공급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물은 건강에 직결되기 때문에 온 국민이 수질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붉은 수돗물의 원인이 약품 처리 실수 탓이라는 의견도 있고, 낡고 노후한 수도관이 원인이라는 지적도 있다.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수돗물에 문제가 발생하면 파급효과가 매우 클 수밖에 없다. 따라서 근본 원인을 파악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상수도관은 2017년 기준으로 송수관, 배수관, 급수관을 합쳐 전국에 약 740km가 매설되어 있다. 물은 쉬지 않고 흘러야 하기 때문에 조그마한 균열만 있어도 누수가 생긴다. 따라서 노후 상수도관을 교체하거나 균열을 보수하기만 해도 새는 물을 막을 수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상수도관 누수만 막아도 절약되는 물의 규모가 물 부족 현상을 해결하고도 남는다고 한다. 연간 상수도 급수량의 100%에 육박하는 물이 누수된다는 보고도 있다. 다시 말해 공급량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수도물이 상수도관 균열이나 노후로 인한 손상 때문에 누수된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누수만 막아도 수도요금의 상당액을 아낄 수 있을 것이다. 만일, 노후 상수도관의 위치나 누수 지점을 정확히 알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 큰 균열이 생기기 전에 노후 상수도관을 미리 교체하고 이상징후가 발견되는 즉시 보수공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예방 활동을 통해 누수로 인해 땅속으로 사라지는 물을 줄이고, 수도요금도 낮출 수 있을 것이다. 수질 개선 또한 당연히 이뤄질 것이다.

경주 산대 저수지 붕괴와 리스크 센싱

2013년 4월 12일 경상북도 경주시 산대 저수지의 독 일부가 붕괴되었다. 사고 원인은 저수지 노후화와 관리 소홀로 밝혀졌다. 관리 소홀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노후 저수지의 저수율이 95%에 육박하도록 저수 용량을 초과할 동안 아무런 경고 조치가 없었다고 한다. 그로 인해 생긴 작은 구멍에서 시작된 누수가 결국 독의 붕괴로 이어진 과정은 전형적인 리스크 관리 실패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자세한 조사 결과, 제방 및 매설 관수로와 흙 접속부의 누수가 장기화되면서 토사 유출이 심해졌고 이로 인해 붕괴가 급속히 진행되었음이 드러났다.

저수지 붕괴로 인한 인명 피해는 다행히 없었으나 농경지 1.2헥타르(ha) 매몰, 차량 13대 파손, 주택 5동 및 상가 6동 침수, 토사 유입으로 인한 인근 도로 파손 등 큰 피해가 있었다. 만일 흙으로 제방을 쌓은 노후 저수지에 저수량별 위기상황 임계치가 설정되고, 실시간으로 상황을 알려 주는 경보장치가 있었다면 결과가 어땠을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옛 속담이 있듯이 뒤늦은 후회일 수도 있지만 이는 리스크의 적시 감지(Sensing)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 주는 사례다.



최근 리스크 관리 활동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 과거에는 리스크를 식별하고 평가해 우선순위가 높은 리스크에 대응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제는 즉각적인 센싱을 통한 대응이 중요해지고 있다. 위험한 상황에 놓이기 전 선제 감지가 리스크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의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빠른 시간 내에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리스크 관리에도 골든 타임(Golden Time)이 있다. 얼마나 빨리 위기상황을 감지해서 적절한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 리스크가 또 다른 리스크로 확산되는 상황이 방지된다.

리스크는 생물이다

리스크 관리의 성공과 실패 여부를 가르는 척도는, 유연성과 확장성, 그리고 내재화 여부다. 리스크는 마치 생물과 같아서 변화하고 진화하는 속성이 있다. 상황에 따라서 유발되는 원인이 다르기도 하고 대응하거나 통제하지 못했을 때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다. 통제하려고 들면 우회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진화하기도 한다. 리스크의 식별 못지않게

리스크 프로필을 업데이트하고 평가해 재조정하고, 원인과 영향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 리스크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시나리오 설계가 중요한 이유다.

그럼 과연 리스크는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도로에서 고속으로 달리는 자동차가 상대적으로 위험하다는 사실은 누구나 인식할 수 있다. 경찰은 이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과속 감지 카메라로 상시 모니터링을 해 통제한다. 이때 과속 감지 카메라의 역할은 과속 차량에 대한 감지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다. 과속 차량을 적시에 감지하면서 동시에 속도 위반 임계치를 조절하고, 모니터링 범위도 확대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부서회식을 하다 보면 상황에 따라 예상치 못하게 지출이 커질 때도 있고, 애초에 계획된 금액이 전 결 규정을 초과할 때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람들이 내부통제를 우회하는 방법을 찾으려 할지 모른다.

예를 들어, 지출 규정상 팀장 전결로 부서회식 명목의 지출이 가능한 금액의 한도가 5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자. 실제 회식비로 70만 원을 썼지만 부서장의 사후 승인을 회피할 목적으로 법인카드를 두 차례에 걸쳐 40만 원과 30만 원으로 나누어 결제했다면, 이러한 행위는 과연 규정 위반이 아닐까? 법인카드 분할 결제를 통해 한도를 초과한 금액을 지출하더라도 이에 관한 명확한 규정과 지침이 없을 경우 효과적으로 이를 통제하기가 어렵다. 통제 우회를 목적으로 한 분할 결제 시도의 적시 적발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내부통제 운영 원칙은 '부정 위험 평가' 및 '위험 방지 프로그램'의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시한다. 만일 법인카드 분할 결제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고 부정 위험 방지 목적의 상시 모니터링을 설계해 데이터 분석으로 내부통제를 운영한다면 충분히 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생활 속 리스크 지표 관리

리스크 지표(Risk Indicator) 중에서 우선순위가 높아 핵심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대상을 핵심 리스크 지표(Key Risk Indicator)라 한다. 기업마다 비즈니스가 다르고 조직 규모, 운영 방식, 추구하는 경영 목표 등이 다르기 때문에 관리해야 하는 리스크의 우선 순위도 다르다. 마치 사람들에게 건강이 삶의 공통된 목표라 해도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건강을 관리하고 위험 신호를 감지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건강을 해치는 원인은 다양하다. 외부 충격에 의한 사고도 있겠지만 식습관이나 스트레스, 유전적 요인 등 그 원인이 천차만별이다. 음주운전을 하지 않고, 피곤할 때는 휴식을 취한 후 운전을 하며, 신호를 준수하고 과속하지 않는 것은 외부 충격에 의한 사고의 대표적인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행동이다.

건강검진 또한 생활 속 리스크 지표 관리의 좋은 예다. 흔히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암, 희귀난치질환을 4대 중증질환으로 분류한다. 이러한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혈압 검사, 심전도 검사, 혈액 검사, 소변 검사, 자기공명영상(MRI), 컴퓨터단층촬영(CT) 등 다양한 방법으로 건강 상태를 확인한다. 이때 검사 결과는 대부분 수치로 나타난다. 수치상으로 임계치를 넘어가면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고 판단한다. 이렇게 각종 지표를 설정하고 데이터를 수집해서 분석함으로써 현재 상태가 위험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건강을 위한 지표를 모니터링함으로써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거나 악화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듯이, 기업에 있어 리스크 지표 모니터링은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내부통제 요소다. 기업도 개인의 질병과 같이 내부통제 취약점으로 인한 부정이나 재무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위험한 상황을 방지하고 적시에 대응하지 않으면 병이

깊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경영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

건강한 인생이 개인의 목표이듯이 기업도 계속 기업으로서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양적인 성장과 더불어 질적인 성장이 필요하다. 기업의 질적인 성장은 리스크를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리스크의 확산을 방지함으로써 이룰 수 있다.

신(新)외감법 개정에 따른 내부회계 고도화 이후 전략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신외감법)’에 따라 자산규모 2조 원 이상 기업을 시작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고도화가 추진되고 있다. 올해는 5,000억 원 이상 규모 기업들이 내년의 내부회계 감사에 대비하기 위해 고도화를 진행 중이다. 검토에서 감사로 전환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가장 큰 변화는 내부통제를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자체 개선해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내부회계 고도화 이후 기업들이 대비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내부회계관리제도는 경영진과 이사회에 무관심 때문에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인해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인인 인증 수준이 ‘검토’에서 ‘감사’로 상향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내부통제의 운영을 설계부터 실질적 운영까지 강화하지 않으면 감사 기준에 부합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기업들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인인 인증 수준이 검토에서 감사로 상향되었다는 의미는 제도의 실효성, 현행화 수준, 그리고 이행 가능성을 높여준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과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방식은 주로 문서 확인과 질문이 주를 이루던 ‘검토’ 방식이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외부감사인인 인증

과정에서 더 높은 수준의 확신을 제공하는 ‘감사’ 의견을 표명하기 위해 보다 더 광범위하고 신뢰성 있는 증거의 수집이 요구된다. 즉, 실질적인 증빙을 확보해 검토하고 그 결과를 문서화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내부통제 설계상의 미비점이 있는지, 운영상 문제는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 또한 내부통제 운영 테스트를 위해 수집한 증빙에 대한 신뢰성 확보 절차도 필요하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향후 기업들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전반과 관련 제도, 조직 개편, 내부통제 고도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과거와 달리 내부통제의 설계에만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 설계된 대로 실질적인 운영이 이뤄져야 하고, 업무나 경영환경의 변화에 따른 관리도 중요해졌다. 따라서 내부회계 고도화 이후 어떠한 준비를 해야 실질적인 내부통제 고도화를 이루는 동시에 외부감사 대응이 적절히 이뤄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내부회계 고도화 이후 대표적인 과제로 내부통제의 시스템화와 부정 위험 방지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의 구축과 직무분리의 재설계 및 시스템화가 꼽힌다. 기업 입장에서는 내부통제 감사에 대응하기 위해 시뮬레이션으로 도출한 개선 사항을 사전에 조치하는 활동이 필요하고, 내부통제 운영을 위한 문서화와 테스트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이 과중할 경우에 대비해 효율적인 업무 경감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내부통제와 IT의 중요성

내부회계관리제도 고도화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이슈 중 하나가 바로 IT를 활용한 내부통제의 중요성이다. IT가 내부통제에서 중요한 이유는 기업의 주요

업무 처리와 재무회계 데이터의 생성, 저장, 그리고 시스템 간 데이터 인터페이스 등이 IT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즉,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자료의 원천이 IT 시스템에 저장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내부회계관리제도에서 IT를 중요한 부분으로 다루어야 한다.

IT 시스템의 중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자판기를 예로 들자면, 1,000원을 투입구에 넣고 500원짜리 콜라를 선택하면 콜라가 상품 배출구로 나오고 나머지 500원을 잔돈으로 받을 수 있다고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어야 누구나 지속적으로 해당 자판기를 사용할 것이다. 만일 콜라가 아닌 다른 음료가 나오거나 잔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아무도 자판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IT 시스템도 마찬가지로 신뢰성과 효과성이 담보되어야 이를 활용할 수 있다. 매출이 발생하고 서비스나 제품이 제공되며, 대금이 청구되고 최종적으로 이익이 장부에 반영되는 모든 흐름이 IT 시스템에서 이루어지고 관련 데이터가 저장된다. 따라서 IT 환경에 대한 내부통제가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다. 만일 IT 내부통제 설계 혹은 운영상에 미비점이 있을 경우, 해당 IT 시스템으로부터 산출된 재무회계 정보의 신뢰성에 의심이 갈 수밖에 없다. 따라서 IT 시스템의 신뢰성은 재무제표의 신뢰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내부통제 관점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IT 시스템의 활용에서 얻는 이익에는 업무의 효율성 증가도 있지만 효과적인 내부통제도 있다. 과거 1980년대 초까지만 해도 버스에는 ‘안내원’이 있었다. 안내원은 정차와 출발을 알리는 업무를 수행했지만 요금을 받아 관리하는 업무도 수행했다. 당시에 버스 요금을 사람이 관리하다 보니 오류와 부정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탑승객 정보와 요금 수납액 정보의 정확한 파악이 불가능해서 마감할 때 대사(Reconciliation)를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인적 오류(Human Error)나 부정행위(Fraud)가 있어도 쉽게 적발할 수 없는 구조였다.

1984년부터 차츰 버스에 자동 안내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안내원도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지금은 티머니 혹은 교통카드가 사용되면서 버스를 타고 내릴 때 카드를 인식하면 승·하차 구간에 따른 거리 비례로 과금이 이뤄지는 일종의 ‘자동화된 통제’ 방식으로 바뀌었다. 물론 아직도 현금으로 버스요금을 지불할 수 있지만 과거에 비하면 대부분 시스템에 의한 과금으로 변했다고 볼 수 있다. 이렇듯 버스요금 수납에 자동화된 내부통제가 적용되면서 과거에 비해 인적 오류나 부정행위가 거의 사라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내부회계 고도화 이후 상시 모니터링 도입의 필요성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은 효과적인 내부통제 운영을 가능케 한다. 이 시스템에는 조직 정보 관리, 통제 기술서 관리, 테스트 문서 관리, 증빙 관리 등과 같이

내부통제 운영을 위한 기능뿐만 아니라 부정 방지 프로그램 운영, 내부통제 운영 테스트를 위한 자동 샘플링, 리스크 모니터링을 위한 데이터 자동 인터페이스 및 분석 기능이 포함되어야 한다. IT를 활용한 상시 모니터링은 내부통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발견 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지원함으로써 내부통제 수준을 강화하고 자동화를 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기업들은 내부회계 고도화 이후 과연 어떻게 내부회계 감사에 대응해야 하는지에 관심이 많다. 특히 일회성의 보여 주기식 운영으로는 감사 대응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전에 시뮬레이션을 수행해 발견 사항을 미리 조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내부통제 취약점이 발견되고 자체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다. 한편 이러한 내부통제 개선에는 현업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는 측면도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별도의 노력이 필요하다.

내부회계 고도화 이후의 이슈는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내부통제 감사의 사전 대비와 효과적인 내부통제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기업들은 과거의

소극적인 내부통제 운영이 아닌 중요한 취약점의 적극적 식별을 위해 IT를 활용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내부통제 설계를 고도화해야 한다. 내부회계 모범규준에서도 IT를 활용한 내부통제와 자동화된 통제 강화가 권고되고 있다. 기업의 재무회계 관련 정보와 보고서들이 대부분 IT 시스템으로부터 산출되기 때문에 IT의 활용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둘째, 부정 리스크 모니터링을 위해 IT 시스템을 활용해야 한다. 전사 수준의 내부통제 설계 시 부정 방지 프로그램의 운영 여부가 중점 감사 사항으로 권고된다. 기업은 발생 가능한 부정 위험을 식별하고 이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다시 말해, 부정 발생 가능성의 시나리오를 사전에 설계해 이를 모니터링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때 부정을 직접 적발할 뿐만 아니라 부정이 의심되는 상황, 기업의 재무적 손실을 초래할 만한 자산의 오용 또는 남용, 비용의 무분별한 지출, 규정을 위반하는 사항들도 시나리오와 모니터링에 포함해야 한다.

부정 방지 프로그램은 IT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업무 행위가 IT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정 위험이 의심되는 사항들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데이터 분석만으로도 일정 부분 부정 위험을 모니터링할 수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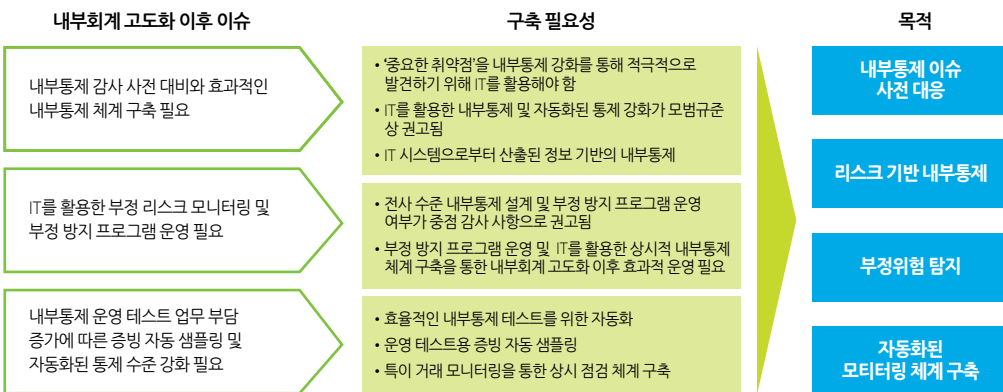
셋째, 내부통제 운영 테스트와 관련해 현업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다. 내부통제가 설계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테스트 절차에 부합하는 증빙 샘플이 필요하다. 이때 증빙 샘플은 완전성과 정확성을 갖춰야 한다.

상시 모니터링 도입 후 기대효과

내부회계관리제도 고도화 이후 상시 모니터링을 도입할 경우 이를 통해 3가지 측면에서 효과를 볼 수 있다.

첫째, 내부통제 측면이다. 상시 모니터링 구축을 위해 프로세스 수준에서 리스크를 식별하고, 내부통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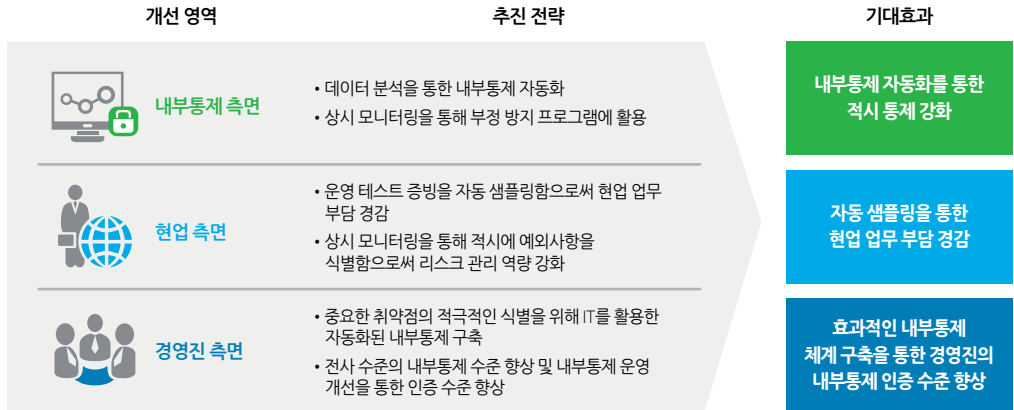
그림 1. 상시 모니터링의 필요성



근거 규정

(감독 규정) 제6조 제2항: 회계정보 작성·공시 관련 위험 예방 및 적시 발견을 위한 상시적·정기적 점검 체계 수립

그림 2. 상시 모니터링 구축 후 기대효과



취약점과 관련된 시나리오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내부 통제 설계 수준이 업데이트된다. 여기서 업데이트는 IT 시스템을 통해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운영되는 흐름을, 마치 엑스선(X-ray)으로 들여다보듯 데이터의 흐름을 통해 어느 지점에서 병목현상이 발생하는지, 내부통제 취약점으로 인한 통제 우회가 발생하는지 점검함을 의미한다. 또한 상시 모니터링을 부정 방지 프로그램의 운영에 활용하고 내부통제를 자동화해 적시 통제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통제의 수준을 향상할 수 있다.

둘째, 현업 측면에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앞서 상시 모니터링 도입의 필요성에서도 언급했듯이 내부통제 운영 테스트를 위한 샘플 추출과 이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현업의 업무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로 인해 증가된 업무 부담을 자동 샘플링과 상시 모니터링을 활용해 일정 부분 줄일 수 있다. 물론, 기업의 전사적 자원관리(Enterprise Resources Planning, ERP) 시스템과 주요 업무 시스템이 자동으로 인터페이스되어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 상시 모니터링 항목을 설계할 때 처음부터 내부

통제 운영 테스트를 고려하고 주기적으로 샘플링을 하되, 임계치를 설정해 부정이나 오류가 의심되는 건을 별도로 추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셋째, 경영진 측면의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IT를 활용해 자동화된 내부통제를 구축함으로써 내부통제의 신뢰도 향상은 물론 내부통제 운영 개선을 통한 인증 수준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수학적으로 100-1=99다. 그러나 비즈니스 환경에서는 100-1=99가 아니라 0이 될 수도 있다. 앞서 경주 산대 저수지 붕괴 사례와 같이 작은 구멍 하나가 독을 무너뜨릴 수 있듯이, 리스크는 마치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적절한 내부통제와 리스크 대응 활동을 통한 리스크의 누적과 확산 방지가 필요하다. 그러한 의미에서 상시 모니터링은 내부통제의 효과적인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Contact

채수완 이사
 Risk Advisory
 02-6676-2959
 sochae@deloitte.com